



# 環境保全을 위한 提言(Ⅳ)

## A Proposal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Ⅳ)

기술사의 9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의 행정에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기관은 대학교 등인데 현실적으로 대학교수가 참여하는데 한계점이 너무 큰 것이다. 고향을 찾는 기술사도 기꺼운 마음으로 首丘之心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지자체의 상황을 잘 아는 기술사가 지방의 이익을 꾀할 것이며 기술사 자신도 공지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종의 WIN-WIN작전이 될 것이다.



文承洙\*  
Mun, Sung Su

### 1. 서론

97년 하반기 당국의 외환관리 능력부재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IMF 구제금융체제는 실은 그 이전에 방만하였던 우리의 오만과 어리석은 생활 탓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체제에 들어가자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극도의 혼돈에서 질서 정연한 체제로의 이행, 예를 들어 현저히 줄어든 자동차 소동, 전광판의 심야 소동,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에 따른 소비의 위축 및 통행인의 감소 등등. 결국 과소비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었음을 알게되었고 아울러 오염의 저감은 불행한 일이지만 적절한 대가로만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알게 된 것이다. 마약은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환락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중독과 반신불수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이, 과소비는 마약과 같은 동일한 과정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

로운 국민의 정부를 갖게 되었고 IMF에서 요구하는 각종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돌이켜 보면,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예방차원에서 극히 소중한 교훈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역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다행한 일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그때그때 정리하였다면 좀더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빨라졌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제 우리는 단지 남은 돈과 인위적 경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값비싼 시행착오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21세기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당당히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격 있는 선진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시사성 있는 제언을 하고자한다. 벌써 네 번째의 제언인지라 자꾸 헛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이를 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질관리기술사, 공학박사, 한남수지공업(주) 기술교문, 본회 홍보위원.

## 2. 본 론

이 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껍질(舊態)을 탈바꿈하기 위하여 껍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벗기 위한 해법을 아울러 제시한다.

### 2.1 왜 각종 규제가 존속되어야 하는가?

과거 우리의 사회구조가 취약했던 시절에 백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예를 도입하여 일일이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가 의도하는 틀에 맞추기 위한 법제화로서,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공은 지대하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수준을 어린애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옷으로 신체를 제약하고 있음은 이제 불합리 요소의 맨 첫 번째 요소가 되었고 이는 타파되어야 할 제일 과제가 된 것이다. 사춘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간 우리 국민에게 걸맞은 적합한 옷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밥을 해체하고 단추를 다시 달아야 하고 모자라는 천을 다시 붙여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일체의 규제 없이 사후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못 한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사후관리와 평가를 위주로 한 정책의 예측, 수립과 이의 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업무를 민간으로의 移讓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2.2 환경산업을 국가의 과제로

팔당호가 3급수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정수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온적이고 일시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조치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袖手傍觀하고 있다. 미국의 대공황 시에 TVA Project로서 불황탈출을 시도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비틀거리고 주저앉기 직전의 나라 경제상황의 돌파구로서 환경산업을 키운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산업은 오염방지에 필요한 설비로서 거의 모든 기계기구가 사용되며 이에 따를 다운 스트림에 놓여있는 많은 기존산업과 첨단기술을 추스려서 우선 국내의 환경을 정비하여 원화절하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의 생을 쾌적하게 해야 한다. 환경산업은 평화산업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에 관련 없는 명분 있는 산업으로서 타국의 기술지원이나 자재지원 그리고 무역흑자를 유도할 중요산업으로 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는 타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 지구의 생태계 보전을 기할 수 있어 국가의 위상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 2.3 왜 제언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는가?

각종 간행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이를 다 읽어보고 듣고 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 당연히 정해진 부서에서 이를 읽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법을 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문인의 제언이라면 당연히 요점을 파악하여 조치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귀를 열고 말한 사람에게 답을 해야 살아 있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언들은 컨설팅의 답이 되어 민간 부분에는 부가가치가 붙고 있는 일들이다.

일반인이 정부에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는 公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속에 잠재한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기술과 지식은 당장 몇 천킬로만 밖으로 나가면 부가가치가 붙는 중요한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모 부서에서는 질의 회신 시에 “그리 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단답형 질의회신을 보내는데 이는 公僕이라면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는 아

래와 같습니다.”라고 보내야 하지 않을까?

#### 2.4 포장재에 환경세를 부가하자

현재 우리가 버리고 있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식품폐기물을 제외하고 주로 종이류 목재류 플라스틱류이다. 이러한 재질의 용도는 주로 용기류와 포장재로서 환경 오염의 증범이면서 이의 과소비는 현재의 가격으로는 여전히 인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플라스틱류는 지하유전에서, 종이와 목재는 산림에서, 자연의 일부를 훼손할 수밖에 없고 이의 원상회복은 장기적인 기일을 요하므로 단기간에 이를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종이와 플라스틱 경우에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그리고 제지공장과 석유화학공장 이외에 이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금의 원천징수는 징수 비용조차 절약될 것이므로 새로운 과세원으로 종이와 포장재용 플라스틱에 환경보전의 재원마련을 위한 적절한 세율의 환경세를 도입하자.

이러한 세금이 부가된 물질에 대한 과소비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쓰레기도 줄고 그 처리비 예산도 줄어 國富가 축적될 것인가?

#### 2.5 주행세의 혁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좁은 국토에 여전히 도로를 개통하려고 각종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므로 식량자급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산간지에도 자동차 배기가스를 살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오염은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物流와 단체를 이송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간이 살아갈려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오염이므로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 온실가스로 알려진 탄산가스가 배출되는 것처럼, 공공

용 수송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너무나 많아서 나라의 고민인 승용차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연료에 혁명적인 가격의 주행세를 부가하여 이의 운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물류와 공공 수송의 시간단축과 소통을 확보하여 國富의인 국내의 교통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이 적시이며 구제금융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하되 과거 석유비축기금의 유용과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투명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교통세가 부가된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설사 그것이 외제차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운 시선으로 보아야 하고 운행자도 여행의 경계를 신상의 불편보다도 우선하는 의식을 가지면 승용차를 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승용차가 많아졌다느니 하는 언론 플레이는 종식될 것이다.

#### 2.6 지자체에 거는 기대

이번 달에 2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初代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당선된 선량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꽃은 그 지역에 맞는 규정을 즉시 대응하면서 고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쓰레기처리 음식폐기물 분뇨처리시설 등이 거의 자치제 예하의 기관으로 되어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의 도출을 투명하게 하여 해법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에 거는 우리 기술사의 기대는 적어도 그 자치제를 고향으로 하는 지방 출신의 기술사를 선발하여 행정에 필요한 기술자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기술사의 90%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의 행정에 자문을 하여 줄 수 있는 기관은 대학교 등인데 현실적으로 대학교수가 참

여하는데 한계점이 너무 큰 것이다. 고향을 찾는 기술사도 기꺼운 마음으로 首丘之心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지자체의 상황을 잘 아는 기술사가 지방의 이익을 피할 것이며 기술사 자신도 긍지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종의 WIN-WIN작전이 될 것이다.

### 2.7 기술을 파는 시스템을 갖추자

각국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너무 쉽게 내주고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愚를 수 없이 반복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세계화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후진국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만 대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중국에 가니 이탈리아 등 유럽 몇 개국에서 기술제공, 시공 그리고 금융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환경사업에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의 결론으로는 물건값에 모든 것을 전가시켜야만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리라.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도 시스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현지 교민의 정보와 우리의 판단으로 직접 소비자를 체험하는 교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간에 선진국으로부터 당해왔던 시행착오의 경험을 승화시켜 우리가 개발해온 많은 기술을 후진국에 내다 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를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외채를 갚으려면 이제 우리는 내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팔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최첨단 제품만이 무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처럼 해외에서도 우리끼리 제 살을 깎아 먹는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세계시장도 좁은 판에 우리의 국토는 너무 좁고 우리의 고객은 너무 적다.

### 2.8 전문가는 누구인가?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1천여개의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년 정도만 근무하면 전문가 행세를 한다. 이는 같은 업종이 많지 않고 다른 업종의 방지사설을 비교적 빨리 익히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물에 뜬 부초처럼 뿌리 없는 기술임에 틀림없다. 그 많은 진성 또는 유사 전문가들도 이제는 등급을 매겨 마치 무디스社나 S & P社의 國家의 신용도와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적절한 평가기관에서 자신의 기술 등급을 매겨주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기술계를 빨리 떠나야, 상대적이긴 하지만 재정적인 여유를 갖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 2.9 토요일을 휴일로

곧 실업자가 200만 명이 된다고 하며 실제 실업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 300만 명의 실업자를 가진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업무를 분석하면 집중적으로 해야될 일은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시간 소비성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일의 효율면에서 선진국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우리가 내다 팔 것을 찾아내어 추스려 주는 기관을 마련하여 협력 시스템화하고 무역의 전초로 삼을 수 있는 많은 해외여행 경험자를 모아 일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라의 富強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국 개중에 중국조차도 토요일을 쉬게 하여 고용을 늘리고 있는 입장에서 공정한 무역을 위한 각종 공정성협약(라운드라 알려진) 특히 노동형평성 문제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하루 만나질 일하기 위하여 출근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정부는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단안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고통을 나눠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력이 다져질 것이므로 어찌 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국경일과 기념일은 대폭 축소 조정하여야 하고 1주 2일의 휴일도 업체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면 이러한 조치로 신중 고용이 다양하게 창출 될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새로운 고용은 시장기

능에 맡겨야 한다.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의 소비도 훨씬 감소되며 업체의 휴일 선택에 따른 휴일의 분산으로 용수와 전력 등 에너지의 집중 사용이 해제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연속 가동하는 산업시설의 운전과 폐수처리장 등의 운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겠지만.

### 3. 결 론

우리가 이대로 옛 제도하에서 살아 날 길은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의 껍질을 벗어내고 우리에게 부족한 협력의 정신을 제도권하에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 열거한 모든 사항은 단지 局部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은 나라의 부를 쌓아 빛 값고 이자 값아야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을 빗쟁이에게 압류당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추슬러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동참하는 기술사제위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권유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원고 접수일 1998. 5. 11)